



광주시립교향악단이 무대에 올라 연주하는 모습.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 문학, 음악으로 듣다

광주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20일 예술의전당 대극장

시·소설·동화 모티브 음악

악기로 인물 묘사...잔잔한 여운

가사 없는 뉴에이지 음악, 클래식 등을 감상하며 노랫말을 떠올려 보는 경우가 있다. 비상하는 종달새의 날갯짓과 어미 거위의 뒹뒹거림, 요정의 정령까지... 음악은 듣는 이가 자유분방한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 매개가 된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이 374회 정기연주회 '이야기'를 20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시와 소설, 동화를 모티브로 음악과 문학이 만나는 의미있는 자리다. 지휘자로 부산시향 최수열 예술감독이 나서 연주의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공연의 서막은 윌리엄스의 '종달새의 비상'이 연다. 시인 조지 메리디스의 동명의 시에서 따온 이 작품은 바이올린의 선율이 아름답게 흐르는 것이 특징이다. '노래하며 날아오르다 한 점이 되는 종달새'를 보며 영감을 받았다는 윌리엄스의 언급처럼, 곡은 평화로운 숲에서 우짖는 새의 목소리 같이 나직하게 시작한다. 그러다 점차 곡이 전개되면서 바이올린의 고음 연주가 이어지고, 마침내 새가 원경으로 떠나가듯한 분위기로 마무리된다. 단상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이혜정이 오를 예정.



바이올린 이혜정

첼로 심준호

연세대 음대와 독일 쾰른 국립음대를 졸업한 이씨는 전남대 예술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후진 양성에 힘쓰는 중이다. 맨해튼 음대 콘체르토 경연대회 우승, 베르겐 필하모닉 경연에서 입상하는 등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0세기 초 라벨이 쓴 피아노 모음곡 '어미 거위'의 멜로디도 무대를 수놓는다. 프랑스 동화작가 샤를 페로에게서 영감을 얻은 이 작품은 총 4곡으로 구성되며 '잠자는 미녀의 파반', '엄지 동자', '미녀와 야수의 대화', '요정의 정원'이 포함돼 있

다. 이들 곡은 각각 '잠자는 숲속의 공주', '빨간 모자', '미녀와 야수' 등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이미 원전을 알고 있는 경우 특별한 해설을 곁들이는 등 주석이 필요 없을 터. 라벨의 '어미 거위' 모음곡은 대부분이 익히 알고 있는 17세기 샤를 페로의 작품을 오마주해 창작한 작품들이다. 관객들은 해석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작품 자체를 음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부에서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음악을 통해 재해석된다. 이번 무대는 독일의 작곡가 슈트라우스의 창작 의도에 따라 각 악기가 작품 속의 배역을 맡는 것이 특징이다. 악기들이 의인화 된 배우인 셈이다. 주인공 '돈키호테' 역에 첼로, 돈키호테의 동반자 '산초' 역은 비올라와 튜바, 클라리넷, 돈키호테의 꿈속 여인 '돌시네아' 역은 목관악기가 맡아 인물들의 특징을 묘사한다.

돈키호테의 무용담 속에서 관객들은 음악에 담긴 메시지까지 떠올릴 수 있다. 또 열 개의 변주곡, 서주부터 피날레 등에 담기는 소설 속 에피소드는 잔잔한 여운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작품의 감상 포인트는 돈키호테를 표현하는 심준호의 첼로에 있다. 심씨는 예원학교, 서울예고 등을 수석으로 입학했으며 현재 서울대에 출강하고 있다. 노르웨이 국립음악원에서 지안 왕, 트롬스 피르크 등을 사사하는 등 해외에서 실력으로 인정받아온 아티스트이다.

R석 3만 원, S석 2만 원 A석 1만 원. 예매는 티켓링크 등에서 가능하다.

/최리빈 기자 rubi@kwangju.co.kr

## 시가 되는 '일상의 풍경'

임형택 시인, 시집 '희망의 노래 평화의 기도' 펴내

일상에서 마주하는 대상과 풍경을 오랫동안 응시해 시로 갈무리한 작품집이 출간됐다.

임형택 시인(광주대 교수)이 최근 '희망의 노래 평화의 기도' (도서출판 박복)를 펴냈다.

이번 시집에서는 세상의 슬픔과 괴로움을 회피하지 않고 자신만의 희망의 노래를 전하는 화자의 단단함을 엿볼 수 있다. 맑으면서도 솔직하고 담백한 이야기가 담긴 시는 잔잔한 여운을 준다.

다섯 번째 시집인 이번 작품집에는 모두 120편의 시가 수록돼 있다.

시인은 삶의 사공간에서 마주하는 대상과 풍경을 모티브로 자신의 감정을 엮어 노래한다. 한 편 한 편 시는 그렇게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 다가온다.

지난 2016년 월간 '모던 포엠티'로 등단한 시인은 그동안 모두 다섯 권의 작품집을 펴냈다. 한편 '시인과 주방장'으로 널리 알려진 김윤현 시인은



'첫 시집 '슬픈 낙관주의자의 희망의 노래'로부터 '희망의 노래, 평화의 기도'로 이어지는 그의 시를 '홀로 다같이', '희망 더하기'라고 표현해 본 다"며 "마른 골목에서 풀꽃을 보면 하늘을 생각하고 비를 생각하는 사람, 조금 더 좋은 세상, 아름다운 미래를 기록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청각 예술' 미래엔 어떻게 받아들일까

ACC, 사운드 아트 특강...김석준·멜레 교수 등 강연



전자음악 작곡가인 영국 애버딘대학 김석준 교수.

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등 미래의 청각 예술을 탐색하는 강좌가 열린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이 사운드아트를 주제로 한 특별강좌를 마련했다. 일명 '듣기의 미래: 도시'이며 오는 14일 문화정보원 극장3.

강좌에는 전자음악 작곡가인 김석준 교수(영국 애버딘 대학교)를 비롯해 네덜란드의 멜레 야모모 교수(암스테르담 대학), 1세대 소리예술가(사운드 아티스트) 크리스티나 쿠비쉬(독일) 등 세계적인 예술가가 강연자로 나선다.

먼저 김석준 교수의 '듣기의 미래: 도시'는 향후 10년, 20년 후 인간이 어떻게 소리를 받아들일 것인지 질문을 던지며, 미래의 청각 예술에 대한 가능성을 탐구한다.

멜레 야모모 교수는 '소너스 그리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소리의 관계'를 주제로 서구문명의 음향 기술과 듣는 방식이 어떻게 동남아시아의 청각 문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다.

우리 주변의 소리풍경(사운드스케이프)에 관한 연구를 공유하는 시간도 있다. 크리스티나 쿠비쉬는 '들리지 않는 소리풍경-40년간 전자기소리의 연구'를 매개로 지난 40년간 진행해온 소리풍경(사운드스케이프)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

200명 선착순 모집하며 수강료는 무료. 자세한 정보는 ACC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강현 전당장은 "이번 강좌는 ACC 사운드 랩과 레지던시가 함께 연구하는 '도시와 소리풍경(사운드스케이프)'에 대한 대중 강연으로 기획됐다"며 "듣는 행위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고, '듣기의 미래'에 대한 토론의 장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한국 문학' 세계 독자 대상 감상 공모

한국문학번역원 9월까지 리뷰 공모...영어·중국어 등 5개 언어

한국문학번역원은 '2023 한국문학 리뷰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한국문학번역원이 선정한 대상도서 중 한 권을 읽고 5개 외국어로 감상을 작성해 응모하면 된다.

대상도서는 '고래' (천명관),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김초엽), '보건의사 안은영' (정세랑), '딸에 대하여' (김혜진), '희망이 외롭다' (김승희)이다.

대상 언어는 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스페인어로, 한류 수용도가 높거나 한국문학 확산 잠재력이 높은 국가의 언어 5개를 선정했다고 번역원은 밝혔다. 해당 언어 중 하나로 리뷰를 할 수 있는 경우 국적과 무관하게 응모할 수 있다.

대회는 만 14세 이상 외국인 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리뷰 형식은 글은 물론 그림, 영상도 가능하다. 9월 30일 접수를 마감하고 10월 24일 수상작을 발표하며, 부문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한국 방문 기회도 주어진다.

참가 희망자는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응모작을 올린 뒤 대회 누리집(klwave.or.kr/review



/)에 참가자 정보와 응모작 링크 등 필요 정보를 등록하면 된다.

타인이나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지 않은 개인의 순수 창작물만 응모할 수 있으며, 번역원은 수상작에 대해 작업 과정, 표절 등에 대한 검증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